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461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태 21,28-32)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태 21,28-32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죄인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아들은 포도원에 일하러 나가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싫었으나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나갔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하고 말 한 후에 포도원에 일하러 나가지 않았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고 계신다.

여기에서 두 아들의 비유(29-31)를 통해 “예”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무엇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도 함께 부르시고 계신다.

당시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멸시와 질타의 대상이었으며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죄인과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었기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창녀와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31절)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시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명예와 의(의)와 경건과 가식의 가면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죄인과 이방인들은 그들의 잘못된 생활을 회개하고 용서를 청했기에 하느님의 자비심으로 하느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우리도 오늘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마음속 깊은 곳의 고집스런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같은 마음..

외형적인 신심행위를 벗어버리고..

내게 임무가 주어질 때 “예”하고 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충실한 실천이 뒤따르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레위기의 내용과 구조!”

5분 신앙상식

레위기의 그리스 말 명칭은 ‘레위티콘’으로, 레위 지파가 맡은 사제직과 관련된 제반 규정들을 담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성막이 건립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나가야 할 제반 법령들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그들만의 고유한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배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이를 신학적으로 재구성하여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 법규, 규정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 7장 : 다섯 가지 제사에 관한 규정.

8-10장 : 첫 제물 봉헌 및 사제들의 축성 예식.

11-15장 : 정결과 부정에 관한 가르침과 정결례법.

16장 : 속죄일에 관한 규정.

17-26장 : 성결법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한 제반 규정들: 제사 규정, 사회법, 축일)

27장 : 서원 예물의 값.

공지사항

-초등부 주일학교 개강 9/7(일)

- 중 고등부 주일학교 개강 9/7(오후1시)

-한국학교 개강 9/13(토)

-2008년 2학기에 시작하는 본당 성경공부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본당: 9/10(수) 오전 10시, 오후 7시30분 시작

-9/14(일) 시작하는 예비자환영식에 많은 분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성경말씀

마태 22, 34-40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당장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웃을 뿌리치진 않았는지요? 생각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웹미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땀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기도하며...

저서 원 정 수
적목 현 정 수

하느님 백 성 자 녀들 아! 모 두 모 - 여 라

우 리 의 삶은 주 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알렐루 아

중 - 기 하 고 봉 사하 자 세 상 모 두에 게

마 음 모 - 아 기도하 고 함께 나 가자 천국 으 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